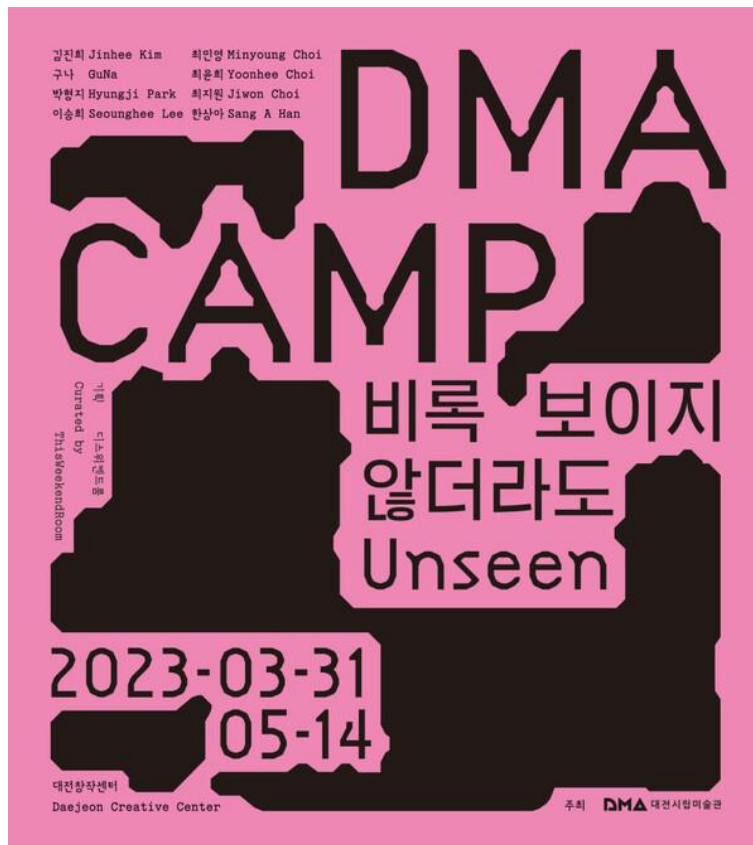


대전시립미술관, 젊은미술 지원 프로그램 전시 발표

선치영 기자 | 2023. 03. 24.



대전시립미술관, 젊은미술 지원 프로그램'DMA 캠프 2023'선정 전시 발표 포스터. 자료=대전시립미술관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 대전시립미술관(관장 최우경)은 'DMA 캠프 2023'에 참여할 3명의 기획자(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DMA 캠프'는 대전시립미술관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젊은미술 지원프로그램'으로 관내 창조적 문화환경 조성 and 지역미술 역량을 강화하는 미술생태계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단순 전시공간제공이 아닌'기획'의 영역을 처음으로 개방했다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올해 2월'오늘날의 미술에 대한 모든 대안적 형태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시작, 지난 9일 블라인드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심사는 내부의 김주원(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외부의 김노암(아트스페이스 휴 대표), 심지연(월간미술 편집장)이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작가'가 아닌 '기획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시의성 있는 담론 창출과 현대미술의 특유의 실험성이 도드라지는 기획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첫 회인 만큼 사업의 의의에 충실하여 원도심을 세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생동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공간으로의 전환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DMA 캠프 2023'에 선정된 기획자(팀)은 총 3 팀으로 오는 31일부터 차례로 대전창작센터(중구 대종로 470)에서 전시 개최의 기회를 갖는다. 또한 이들에게는 전시지원금, 비평가 매칭 등이 지원된다.

첫 시작으로 31일부터 5월 14일까지 디스위켄드룸(대표 김나형) 기획의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가 개최된다. 일상에서 종종 잊히는 비가시적인 실체들과 삶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추상적인 가치들을 주제로 구나, 김진희, 박형지, 이승희, 최윤희, 최지원, 최민영, 한상아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들은 각각 가까이 있지만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을 고유의 언어로 상징화한다.

이어 6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류지이(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기획의 '영화의 얼굴, 거리의 예술 : 1950~70년대 한국의 영화 포스터'가 개최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의 영화 포스터 컬렉션을 소개하여 상업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물론 포스터라는 매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마지막으로 9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정철규 기획의 '구름이 되었다가, 진주가 되었다가'가 개최된다. 작가이자 기획자인 정철규는 2020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본인의 연작 '이름을 지우고 모이는 자리'에서 출발한 기획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호명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상의 인물을 통해 전한다.

한편, 첫 번째 전시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는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개막식은 31일 대전창작센터에서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다.

[출처] 데일리한국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023>)